

모 제사공장 여성 근로자들의 C. M. I에 의한 건강 측정

춘천간전 논문집 제8집, pp.33~55, 1978

김 성 실

제사공장 여성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Cornell Medical Index 를 적용하여 건강 실태 조사를 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 대상자는 우울(N 항), 불안(P 항), 피로감(I 항)의 호소수가 많았다.
2.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군에서 호소수가 많았으며 습관(L 항), 우울(N 항), 노여움(Q 항)으로 정신증상의 호소수가 많았다.
3. 교육수준이 높아 질수록 호소수가 증가하는데 특히 우울(N 항), 불안(P 항)에 서 많은 호소를 하고 있다.
4. 근속연수별로 7년이상인 근로자에서 평균호소수가 10.9로 상회하기 시작하여 10년이상에서는 36.0으로 급증되며 우울(L 항)이 가장 높다.
5. 일일 근로시간 9~11시간에서 평균호소수가 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안(P 항) 과 우울(N 항)의 호소수가 많다.

일부여성 근로자의 피로자각 증상에 관한 조사연구

대전간호전문학교 논문집 제4집, pp.143~159, 1978

민 복 기

저자는 대전시내에 소재한 2개의 방직회사 여성 근로자 648명을 선정 대상으로 하여 근무로 인하여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및 신경감각적 피로증상을 일본산업위원회의 “피로조사법”에 의한 피로호소율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령별 분포는 21세가 17.6%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중졸이 48.3%로 가장 높았다.

2) 근무년한은 6개월이내가 19.4%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보통이 52.3%이었다.

3) 수면시간은 7-8시간 65.1%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적 환경조사는 기숙사가 61.6%로 대다수였다.

4) 통근방법은 도보가 67.1%로 가장 많았고, 통근 소요시간은 20분이내가 55.0%로 대부분이 30분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5) 작업시 자세는 “거의 서서 일한다”가 78.6%로 나타났다.

6) 피로증상중 신체적 피로증세는 낮번은 “머리가 무겁다”가 13.3%, 저녁에는 “눈이 피로해 진다”가 11.7%, 밤번은 “잠이 온다”가 24.7%로 가장 높은 피로 호소율을 나타내었다.

정신적 피로증상은 낮번은 “조바심이 난다”가 12.4%, “말하는 것조차 싫어진다”가 저녁번은 9.6%, 밤번은 14.8%로 높은 율을 보였으며, 신경감각적 피로증상은 “머리가 아프다”가 낮번은 11.9%, 밤번은 16.7%였으며, 저녁번은 “입이 마른다”가 11.9%로 높은 호소율을 나타내었다.

7) 근무별 피로호소율은 신체적 피로증상, 정신적 피로증상, 신경감각적 피로증상 모두 밤번이 가장 높은 피로호소율을 보였다.

8) 야간작업중 가장 졸린 시간은 오전 3-4시가 64.7%로 가장 높았고, 작업을 시작하여 가장 피로를 느끼는 시간은 낮번, 저녁, 밤번 모두 6째 시간으로 나타났다.

9) 1주일 중 가장 피로를 느끼는 요일은 신체적 피로증상군은 월요일, 정신적 피로증상군은 목요일, 신경감각적 피로증상군은 토요일로 나타났다.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 대상자는 대전시내에 소재한 일부 방직회사로 좀 더 확대된 여성근로자들의 피로빈도에 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피로빈도 조사를 일정시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1주간 연속적으로 마지막날의 피로도와 비교하면 더욱 정확한 교대별 피로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작업지속시간, 작업속도, 노동의욕등을 병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피로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가능한 한 다각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작업능률 향상 및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무직 여성과 비사무직 여성의 C. M. I 에 의한 건강평가